

장애학생 방학기간 즐거운 문화체험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영화관 체험활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도 마련돼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 방학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과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매 학기 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으로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청은 체험활동 기회가 부족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 향상 및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음악과 율동을 결합한 ▲ '다함께 흔들~흔들한 생과일 푸딩 만들기' ▲지역사회 문화활동 프로그램인 영화 관람 ▲기초질서와 공동도덕에 대한 체험교육 등이다.

여기에,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 '인문학 공부로 시작하는 자녀 성교육' 프로그램 ▲꽃꽂이를 활용한 '리스'와 '센터피스'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장영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광주동부·서부특수교육센터는 여름방학기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10일까지 운영한다.

적응력 향상 체험 활동·학부모 교양프로그램

광주동부·서부특수교육센터 10~13일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교육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부모들간에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오는 13일까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몸짓, 즐거운 손짓, 행복한 눈짓'의 테마로 여

름방학 과정을 운영한다.

지원청은 무더운 여름 무료로 보내기 쉬운 장애학생들에게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참여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 활동 일환으로 영화관 여가체험 활동을 기획했다.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플로우 컬링·에어볼 등 뉴스포츠 체육활동과 다양한 미술활동프로그램을 마련 소

의 시간을 제공한다.

각 과정에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일반학교 현장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 순회교사가 도우미로 참여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소중한 통합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초등교육지원과 김준영 과장은 "방학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몸과 마음이 더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세심한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호남대-중국요동대학 MOU 미래자동차 분야 인력양성 협력

호남대학교 프라임사업부는 최근 중국요동대학에서 두 대학간 미래자동차분야의 인재양성을 협력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를 정영기 본부장·손완이 국제교류본부장·김철수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진춘화 경영학과 교수·요동대학 천치관 부총장·리잉진 국제교류처처장·류광다 기계전자공학대학 부학장·왕디 기계설계제조 및 자동화학과 학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2020년도부터 진행될 교육과정협약과 학술교류에 대한 상호의견을 나눴다.

특히, 요동대학측은 호남대의 프라임사업과 미래자동차공학부의 미래자동차 전문 인력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동대학의 가장 큰 규모 학과인 기계설계제조자동화학과와의 인재양성 방향과 교육과정을 미래자동차분야로 새로이 개편한 뒤, 내년 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한중 대학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기자

"원어민 선생님이 찾아 왔어요"

전남교육청 소규모학교 영어캠프 지원

"우리학교에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찾아와 기뻐요. 열심히 공부 할래요." 전남도교육청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17개 학교, 360명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원어민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 영어캠프지원단을 파견, 영어캠프 활동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어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순회도 오지 않아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프지원단은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협력교사 2명으로 구성돼 학교가 요청한 날짜에 파견된다. 또 보물찾기·미니볼링·드로잉 게임·뮤지컬체 등 놀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학습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몽탄초 서희원(5년) 학생은 "학교에 원어민선생님

이 오지 않아 항상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영어캠프에서 원어민선생님과 수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2학기에도 '찾아가는 섬마을 영어캠프'를 집중 지원하

고 영어전문인력이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에 힘을 기울인다.

협력교사도 캠프에 참여한 안도중이 명희 수석교사는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수업을 하니 힘은 들지만, 아이들이 영어를 즐기며 재미있어 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관내 17개 학교 36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지원단을 파견, 영어캠프활동을 지원한다.



동강대 응급구조과 최길순 교수(사진 오른쪽 두번째)와 재학생 6명이 최근 본관 장원홀에서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동강대 응급구조과 생명 지킴이 활약 '화제'

4년째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서 자원봉사

최길순 교수 광주시장상...재학생 소방서장상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생명지킴이 활약을 펼쳐 화제다.

동강대 응급구조과는 지난달 30일 본관 1층 장원홀에서 표창장 전달식을 갖고, 최길순 교수에게 광주시장상을 수여했다. 또, 응급구조과 재학생 오승익·이도일·송금성은 광주 동부소방서장상을, 문영은·황주희·김승우 등 3명에게 광주 서부소방서장상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표창장은 지난 5월 광주DJ센터서 열린 '2018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에 동강대 응급구조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기여한 공으로 전달됐다.

응급구조과는 지난 2015년부터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에 참여, 지역민들에게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엔 남구와 협약을 맺

고 지역 내 초·중·고생을 비롯해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다.

재학생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도 키우고 있다.

동강대는 응급의료교육센터도 운영하면서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응급의료교육센터는 지난해 지역 전문대학 최초로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전문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2009년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지정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한국 전문소생술 교육기관 인증까지 받았다.

최길순 교수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기본 처치법만 알고 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중국 속 우리 역사 찾고 미래 설계"

도교육청 선상무지개학교 도깨비 학생 외교단 활동

전남도교육청은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인 '2018 선상무지개학교 도깨비(도전하고 깨우치며 비상하는) 학생 외교단'의 첫 번째 현지 체험활동이 최근 중국 상하이 일대에서 진행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출항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국제 항해 끝에 24일 중국 상하이에 입항한 선상무지개학교는 '중국 속의 우리'를 주제로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유적지에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았다.

또, 루쉰공원(홍커우공원)에 마련된 매원(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조국광복을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힘들게 독립운동을 해 온 조상들의 애국심을 가

슴에 담았다. 특히, 윤봉길 의사가 보여준 강건한 모습에서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기개와 용기를 배웠다.

도깨비 학생외교단은 올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탄생의 출발 지점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저마다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한층 더 성장했다는 평가다.

선상무지개학교 학생외교단 218명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인 상하이 위위안(예원, 명청시대의 대표적 강남 정원)방문을 끝으로 기항지 활동을 마치고, 정박 중인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돌아왔다. /고광민 기자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건해건설(주)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무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MATOC (주한미군 지명경쟁입찰) 등록업체

꿈을 짓는 아파트

디오베이션

대표이사 **이 현 각**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6
Tel. 062) 574-8501 www.gunhae.co.kr

- ▲ 강원 동해시 신북삼지구 총526세대 (9월 분양)
- ▲ 서울 노원구 공릉동 총230세대 (분양 예정)
- ▲ 광주 용봉동 총60세대 (분양 예정)

